

# 다시 주목받는 5·18 피해 여성들의 고통

문대통령, 조사단 구성 언급  
계엄군에 폭행 당한 임산부  
고문 후유증 여성 가장 등  
대부분 트라우마에 침묵의 삶  
유공자 중 여성 5%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중항쟁 38주기를 맞아 언급한 5·18 당시 광주여성의 고통스러웠던 삶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5·18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은 고문과 폭행, 가정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모금활동을 통해 투사회보와 화염병을 제작하고 시민군에 음식을 제공하는 등 계엄군에 적극 대항했지만, 이후의 삶은 대체로 비참했다는 게 5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5·18 20주년을 맞아 지난 2000년 발행한 '여성·주체·삶'을 살펴보면 5·18 때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각종 피해를 입었으나, 이후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 2장 3부 '5·18 민중항쟁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에는 여성이 5·18 때 겪었던 아픈 사연들이 일부 소개돼 있다.

임신 3개월이었던 이주자(당시 26세)씨는 1980년 5월 22일 소란스러운 집 밖을 내다봤다가 군인이 손 총알이 귀를 스쳤다.

그날 밤 국민통합병원원에 입원한 이씨는 군인들이 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 시위대로 오해를 받아 발로 배를 걷어차고, 몸 이곳저곳을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4남매의 엄마였던 박유덕씨의 삶도 기구하다. 남편이 고문으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심한 고문을 받은 사례다.

박씨의 남편은 5·18 당시 '광주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포고령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박씨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추모공연에서 뮤지컬 배우 남경읍(왼쪽)·민우혁씨가 가수 김수철의 '뭇다 핀 꽃 한 송이'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의 남편은 1981년 5월 12일 특별사면으로 출감한 이후에도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붙잡혀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이 죽은 뒤 안기부는 배후조종자를 밝힌다며 박씨를 붙잡아 고문 수사를 이어갔다. 박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3년간 병원 신세를 졌고 식당일을 하며 4남매를 함들게 키워냈다.

5·18 때 5살 여아였던 이시정씨는 밖에서 놀다가 가슴에 관통상을 입었고, 육군통합병원으로 후송돼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이후 이씨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씨는 어린시절 가슴에 '총 맞은 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성인이 됐을 땐 가슴의 흉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졌다. 또 평생 가슴통증 때문에 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담양 대덕면에 살고 있던 이숙자(당시 35세)씨는 5월 21일 남편이 광주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의 총을 맞고 숨지면서 삶이 무너졌다. 남편은 열을 뒤 교도소 안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책 제작에 참여했던 이춘희 부구역성인력개발센터장은 "수많은 여성들이 5·18 때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난 정권에서 폭도로 몰렸던 기억과 그 당시 참혹한 모습 등을 떠올리기 싫어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 방침을 세운 만큼 지난 38년간의 고통이 일부라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유공자 4215명(사망·행불자 제외) 중 여성은 212명(5.02%)이다.

또 여성단체인 YWCA에서는 조직적인 취사활동과 함께 투사회보 제작, 모금활동에 나섰다.

전춘심, 차명숙, 박영순, 이경희씨 등은 광주 전역을 돌며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가두방송을 펼치기도 했다.

책 제작에 참여했던 이춘희 부구역성인력개발센터장은 "수많은 여성들이 5·18 때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난 정권에서 폭도로 몰렸던 기억과 그 당시 참혹한 모습 등을 떠올리기 싫어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 방침을 세운 만큼 지난 38년간의 고통이 일부라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 유공자 4215명(사망·행불자 제외) 중 여성은 212명(5.02%)이다.

또 여성단체인 YWCA에서는 조직적인 취사활동과 함께 투사회보 제작, 모금활동에 나섰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5    달뜨기 11:04  
해질 19:34    달지기 00:20

청명한 봄날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끼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2/25	보성	구름많음	12/22
목포	구름많음	13/23	순천	구름많음	13/23
여수	구름많음	14/21	영광	구름많음	10/23
나주	구름많음	13/23	진도	구름많음	13/22
완도	구름많음	14/22	진주	구름많음	12/25
구례	구름많음	10/23	군산	구름많음	12/24
강진	구름많음	13/23	남원	구름많음	11/24
해남	구름많음	13/23	홍산도	구름많음	13/20
장성	구름많음	11/24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동	0.5~2.0	북동	0.5~1.0
	남해	남동	1.5~3.0	남동	1.0~2.5
남해	남해	동	1.0~2.5	북동	0.5~1.5
	남해	남동	2.0~4.0	북동	1.0~2.5
서부	남해	동	2.0~4.0	북동	1.5~2.5
	남해	남동	2.0~4.0	북동	1.5~2.5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날짜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날씨	☁	☁	☀	☀	☀	☀	☀
기온	16/24	18/23	13/25	15/25	15/26	16/27	16/27

## 서남대 폐교 절차 돌입

### 청산인 "교직원 체불임금 지급 최우선"

폐교한 전북 남원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의 청산 업무를 맡을 청산인이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서남학원은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를 운영하던 학교법인이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흥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던 서남대가 더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폐교명령을 내렸다. 서남학원 역시 운영할 다른 학교가 없어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 업무를 할 청산인을 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재단비리가 터진 뒤 교육부가 파견했던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지정했다.

청산인은 학교 시설관리를 비롯해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 등 아직 남아있는 서남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청산인 측은 특히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 업무를 할 청산인을 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재단비리가 터진 뒤 교육부가 파견했던 서남학원 임시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지정했다.

## 한빛원전 4·5호기서 빈공간·이물질 추가 발견

### 원안위 이달까지 특별점검...광주시민단체 "국민감사 청구"

영광 한빛원전 5호기 1차 보조건물과 터빈건물에서 각각 합판 조각(가로 10cm×세로 29cm×두께 0.5cm)과 각목(가로 5cm×세로 5cm×길이 30cm)이 추가 발견됐다. 4호기에서는 격납건물에서는 공극(빈틈) 6곳이 또 확인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전자력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부

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요청에 따라 진행된 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특별 점검 과정에서 최근 드러났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4호기 원자로 격납철판 부식, 4호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판치, 공극 발견 등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을 통해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가로 4~36cm×세로 2~17cm×깊이

2~8cm다. 공극은 콘크리트 타설 당시 다짐 작업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극 주변 격납건물 내부 철판(CLP) 두께는 모두 정상이며, 철판 뒷면의 부식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점검을 마치는 대로 합판 제거, 공극 메우기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5월 말까지 격납건물 내부를 제외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마치고 점검 결과는 즉시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부실공사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광주YMCA,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원전은 18개월 단위 정기검사, 10년 단위 콘크리트 방호벽 안전검사 등을 했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은폐나 의도적 방치"라며 "원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 수립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YMCA,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원전은 18개월 단위 정기검사, 10년 단위 콘크리트 방호벽 안전검사 등을 했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은폐나 의도적 방치"라며 "원전의 위험요인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의 대안 수립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병사 일과후 휴대폰 사용 허용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 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

어둡다가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또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오는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세한 문장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민음과신뢰의 100년 기업  
www.kwpower.co.kr

#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답도가능)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99KW \* 350기)

###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2차 99KW (잔여분) 69기
- 경복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8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후2시

▶ 장소 :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빌 리조트, 아덴빌CC, 캐슬렉스제주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학교

제주공항에서 24KM

태양광 사업 부지

관방단지에서 17KM

중문관광단지

태양광 설치 후 잡종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안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70만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경원파워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1644-4192  
H)010-5110-566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